

실생활에 적용된 분석합성식 분류기법의 사례에 관한 심층적 분석

An Analysis on the Examples of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Techniques Applied to Practical Life

오 동 근(Dong-Geun Oh)*

< 목 차 >

- | | |
|-----------------------------|-------------------------------|
| I. 서 언 | 3. 결혼정보회사 사이트 |
| II. 분석합성식분류법의 일반적 특성과 작성단계 | 4. 부동산중개 및 법원경매 사이트 |
| III.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의 분석 | 5. 우편번호 및 광역전화통화권역(DDD) 구분시스템 |
| 1.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 IV. 결 언 |
| 2.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번호시스템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분석합성식 문헌분류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의 초성과 중성, 종성의 합성 사례와 함께, 대구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번호, 주요 결혼관련업체의 회원정보, 부동산중개 및 경매관련정보, 우편번호와 광역전화통화권역(DDD) 번호 등의 사례를 문헌분류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합성식 분류이론과 그 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각 시스템의 기호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키워드: 분석합성식분류법, 패킷식분류법, 분류이론, 한글, 시내버스번호-대구광역시, 시내버스번호-서울특별시, 결혼정보회사정보, 부동산중개정보, 우편번호, DDD번호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some examples applied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techniques found in the practical life. For this purpose, it selected and investigated the cases of the combination rules of the Hangeul, the number systems of the city buses of Daegu and Seoul Cities, information of the members of the wedding consulting agencies, information from real estate agents and court auction, and postal codes and direct distance dialing(DDD) numbers in Korea. It suggests that applying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the systems can improve them especially in the regards of notational systems.

Keywords: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Faceted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Theory, Hangeul, City Bus - Daegu, City Bus - Seoul, Wedding Consulting Agencies, Real Estate Agents, Court Auction, Postal Codes, Direct Distance Dialing Number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 접수일: 2011년 5월 22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6일 • 최종심사일: 2011년 6월 28일

I. 서 언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문헌분류에 대한 지식과 그 기법들은 단지 도서관의 자료정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실제생활과는 동떨어진 이론과 기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헌분류에 관한 교육은 주제분석 등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에 관한 이론적 측면보다는 특정의 분류표에 대한 고찰이나 이해, 나아가서는 실제 도서관현장에서 분류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헌분류에 관한 학계의 연구 역시 분류이론의 영역보다는 특정분류표에 관련된 연구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 들어 도서관에서 다루는 자료나 컬렉션의 영역이 점차 인터넷공간이나 가상공간으로 까지 확장되면서, 인터넷서점이나 포털의 분류체계 등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에 분류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분류이론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분석합성식 분류법(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의 이론을 포함한 문헌분류에 관한 전문지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에 관한 어떠한 전문지식 없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 일부사례들은 문헌분류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뒷받침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반영하여 시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Ranganathan이 폐쇄분석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Shelfridge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에서 발견한 Meccano set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¹⁾은 전혀 의외로 생각될 게 없는지도 모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한글의 초성과 중성, 종성의 합성과 함께, 시내버스번호, 결혼관련정보, 부동산중개 및 경매, 우편번호와 광역전화통화권역(DDD) 번호 등의 사례를 분석합성식 분류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²⁾

II. 분석합성식분류법의 일반적 특성과 작성단계

분류표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작성과정을 기준으로 해서는 열거식분류법과 분석합성식 분류법, 그 중간단계인 준열거식분류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³⁾

1)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1989), p.3.

2) 물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연월일코드 부분(1955년 12월 25일생의 경우 “연도(55) + 월(12) + 일(25) → 551225”가 되는 것과 같은 예) 등을 포함하여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들보다 간단한 예들도 있을 것이다.

열거식분류법(enumerative classification)은 관련되는 지식분야를 어떤 주제를 하위주제로 계속하여 세분해나가면서 모든 주제들을 하나의 분류표에 열거하는 분류방법이다.⁴⁾ 이론상으로 보면, 이 분류법에서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예상되는 미래의 기본주제, 합성주제, 복합주제 등의 모든 주제를 열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학문분야와 주제들이 속출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의 모든 주제를 미리 열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합성식분류법에서는 모든 주제를 하나하나 분류표에 열거하기보다는, 지식의 각 분야를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패싯(facet)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본주제로 분석하고, 분류표는 이러한 기본주제와 이를 합성하기 위한 각종의 보조표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성주제는 이것들의 합성을 통해 완성되도록 하고 있다. 분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분석과 합성의 과정을 중시하여 이를 분석합성식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이다.⁵⁾ 구조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이를 패싯식분류법(faceted classification)이라고도 한다. 한편 준열거식분류법은 열거식분류법과 분석합성식분류법의 절충적인 방식임은 물론이다.⁶⁾

분석합성식분류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몇몇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1) 패싯분석, (2) 각종순서의 결정, (3) 분류기호의 선택과 적용의 세 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⁷⁾

패싯분석(facet analysis)은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한 분석(subject analysis)을 바탕으로, “... 패싯을 인식하는 과정, 즉 기본범주를 염두에 두면서, 주제가 어떤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야 하는지(또는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법”⁸⁾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순서의 결정과정에서는, 주류(main classes)의 순서와 열거순서(citation order), 배열(配列: array)의 순서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류의 순서는 분류표의 총체적인 구조를 결정해주는 첫 번째의 구분단계로, 분류표에 있어서는 중요한 순서이나, 실생활의 예에 적용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순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열거순서는 패싯들의 결합순서로, 이런 의미에서 패싯배열식(facet formula)이라고도 한다. 이 순서의 앞에 오는 패싯의 구성요소들은 함께 모이게 되고, 뒤에 오는 패싯의 구성요소들은 분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열의 순서는 계층구조상 같은 레벨에 있는 동위류(coordinate classes)들의 배열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3) 이 연구는 분류법의 구분에 그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분석합성식과 열거식 분류법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분류법의 구분에 대해서는, 문헌분류에 관련된 각 개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오동근,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p.57.

5) S. R. Ranganathan, *op. cit.*, p.8.

6) 열거식과 분석합성식, 준열거식 분류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 오동근, 전제논문, pp.55-76.

7) 상계논문, pp.62-74.

8) 일본도서관정보학회 편, 문헌정보학용어해설, 오동근 역(대구 : 테일사, 2011)(인쇄중).

분류기호는 그 배열위치를 결정해주고 차후에 이루어지는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주소로 사용되는 기호로서, “패킷분석과 각종순서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수단”⁹⁾으로서 부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생활의 예에서는 기호부여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한편 Ranganathan은 이러한 분석합성식 또는 패킷식 분류법에서 이루어지는 분류의 단계를 아이디어단계와 언어단계, 기호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⁰⁾ 즉 아이디어단계(idea plane)에서는 ‘각 주제를 패킷으로 분석하여 그 일반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언어단계(verbal plane)에서는 ‘아이디어단계에서 형성된 아이디어나 개념을 최신의 표준화된 용어로 바꾸게 된다.’ 최종의 기호단계(notational plane)에서는 ‘아이디어단계에서 분석된 주제나 아이디어의 구조나 순서를 구체적인 기호로 변환하여 이를 합성된 하나의 분류기호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Ranganathan은 이러한 3단계의 구분을 역동적인 분류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방법¹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생활의 분류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의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몇몇 예를 선택하여 분류이론적 시각에서 재해석해보고, 분석합성식 분류기법의 적용과정과의 유사점을 검토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한글은 15세기 중반에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이래로 우리민족의 문자생활의 중심이 되는 핵심 문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글은 서양의 계몽주의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에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창제이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글자 자체의 우수성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09년에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짜아찌아족에 대해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2011년에는 남미 볼리비아에 한글표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음문자(表音文字)인 한글은 기본적으로 기호 하나가 음소(音素: 낱소리) 하나를 나타내는

9) 오동근, 전제논문, p.70.
10) 3단계 분류이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 오동근, “Ranganathan의 문헌분류에 관한 규범적 원칙,” 도서관학논집, 제21집(1994), pp.205-210.
11)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328.

문자체계인 음소문자라고 한다. 즉 로마자나 그리스문자와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에 대응하는 각각의 문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음소문자는 한 음절(音節)을 한 글자로 표시하는 음절문자나, 한 문자로 언어의 하나의 말이나 형태소를 표시하는 표어문자(標語文字)와는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소문자가 음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음소의 결합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서는 “凡字必合而成音”, 즉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고 밝히고 있고,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서는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고 하였다.¹²⁾

이상의 기초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한글의 음소분석과 음절표시가 문헌분류에서 채택하고 있는 패킷분석과 분류기호의 합성과정과 너무나도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글은 자음(닿소리)과 모음(홀소리)으로 구성된다.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한글자모의 수는 자음 14자, 모음 10자, 총 24자이다.¹³⁾ 여기에 추가로 5자의 쌍자음과 11자의 쌍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표 1>은 한글자모의 구성과 이름,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한글자모의 구성

구분	수	자모의 순서와 이름
자음	14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ㆁ(앵글) ㅍ(피읖) ㅎ(히읇)
모음	10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쌍자음	5	ㅃ(쌍기역) ㅆ(쌍디귤) ㅍㅍ(쌍비읍) ㅉ(쌍시옷) ㅊㅊ(쌍치읓)
쌍모음	11	ㅕㅏ(애) ㅕㅑ(야) ㅕㅓ(어) ㅕㅕ(여) ㅗㅏ(와) ㅗㅑ(왜) ㅗㅓ(워) ㅗㅕ(위) ㅗㅛ(웨) ㅗㅜ(위) ㅗㅣ(의)

이와 같은 자음은 ‘혀파에서 시작된 공기의 흐름이 발성기관을 거치면서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이고,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없이 나는 소리’¹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언어가 자음과 모음의 종류와 그 순서를 동일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6개의 영어 알파벳은 5개의 모음과 21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문헌분류의 패킷분석에서 나타나는 패킷이나 포커스의 수에 대한 견해차와도 흡사한 점이다.

한편 한글맞춤법에서는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의 순서를 <표 2>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¹⁵⁾ 이것은 문헌분류의 포커스의 배열순서와도 유사한 것이다.

12) 인터넷 블로그에서재인용, “훈민정음은 음소문자가 아니다.” <<http://blog.daum.net/rakhy7/17441650>> [인용 2011. 5. 7].
 13) 한글맞춤법 제2장 제4항(<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1_02.jsp> [인용 2011. 5. 7]) 참조.
 14) 안성도,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 및 모음 비교분석,” 서울교육대학 논문집, 제27권(1994), p.389.
 15) 한글맞춤법 제2장 제4항 붙임 2(<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1_02.jsp> [인용 2011. 5. 7]) 참조.

이상의 분석내용을 문헌분류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에서는 음을 14자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5개의 쌍자음과 11개의 쌍모음으로 분석하여, 기호화하고 있다. 한글의 문자는 19개의 자음(쌍자음 등 포함)으로 구성되는 초성패킷과, 21개의 모음(쌍모음 등 포함)으로 구성되는 중성패킷, 27개의 자음(쌍자음 등 포함)으로 구성되는 중성패킷의 각 기호의 결합에 의한 모아쓰기 방식으로 합성된다. 이와 같은 자음과 모음의 모아쓰기에 의한 합성 방식은 대략 6가지의 기본모양을 가지며, 각각 그 열거순서에 따라 합성된다.

2.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번호시스템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의 개통과 함께 1998년 5월부터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를 계기로 새롭게 운행되는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 오지로 구분하고, 시내버스의 번호체계를 전체적으로 새로이 변경하였다. 현재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급행버스, 순환버스의 4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표 3〉 참조). 또한 색상은 급행버스는 적색(기존에는 주황색과 아이보리색), 간선과 지선, 순환버스는 청색(기존에는 녹색)으로 각각 단순화하도록 하였다.

〈표 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유형패킷¹⁹⁾

버스유형	색깔	특징	버스번호의 예
급행노선	적색 (기존에는 주황색/아이보리색)	- 시외곽과 도심을 급행연결 - 주요정류소만 정차	급행1: 유형(급행)+일련번호(1)
순환노선	청색 (기존에는 녹색)	- 2,3차 순환선 양방향 운행 - 간선, 지선, 지하철 연결	순환2: 유형(순환)+일련번호(2)
간선노선	청색 (기존에는 녹색)	- 시외곽, 도심, 부도심 등 지역간 연결	509: 출발지(5)+경유지(0)+도착지(9)
지선노선	청색 (기존에는 녹색)	- 간선, 지하철 연계 환승 - 지역생활권(학교, 시장 연결)	달서3: 지역구분(달서)+일련번호(3)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번호체계에서는 우선 버스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별도의 번호부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번호부여에서도 그 수가 많지 않은 급행노선이나 순환노선은 그 유형의 명칭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뒤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²⁰⁾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선의 경우에도 지역명의 약칭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를

19)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한근수,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 제고방안(대구 : 대구경북연구원, 2010), p.10.

20) 2010년 현재 대구광역시의 급행노선은 3개, 순환노선은 4개가 운행되고 있다(대구광역시 버스노선안내, <<http://businfo.daegu.go.kr/ba/index/index.do>> [인용 2011. 5. 8] 참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65개 이상의 주요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간선노선의 경우는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하는 번호를 합성하여 시내버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구지역을 10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0부터 9까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그림 1〉 참조).

권역별 구분도	지역구분 패킷	
	기호	권역별
	0	중구, 남구 일원
	1	동구 일원
	2	서구 일원
	3	북구 일원(칠곡 제외)
	4	수성구 일원
	5	두류, 성서, 다사 방면
	6	월성, 상인, 대곡, 월배 방면
	7	칠곡
	8	안심, 하양 방면
	9	시지, 경산 방면

〈그림 1〉 대구광역시의 권역별 구분도²¹⁾ 및 지역구분 패킷

이어서 간선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구분기호를 바탕으로, “출발지+경유지+도착지”의 순서로 기호를 합성하여 버스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버스번호에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조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도입한 첫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권역별구분에 따른 기호부여의 순서가 지역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별구분을 상세하게 하다 보니 십진식의 0부터 9까지의 모든 기호를 사용하여 차후에 새로운 권역을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번호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기사화한 “버스노선 드러난 문제점”이라는 타이틀의 ‘비슷한 번호 헛갈려’라는 소재목이 달린 당시의 신문기사는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새 버스번호 숙지하기 어렵다 = 세 자리수인 새 버스번호에 대한 불만도 있다. 새 버스번호는 대구시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첫 번째 숫자는 출발지 지역번호, 두 번째 숫자는 경유지 지역번호, 세 번째 숫자는 도착지 지역번호로 구성했다. 버스번호만 보면 대충 어느 지역을 운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버스번호가 세 자리여서 익숙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세 자리 버스번호는 좌석버스라는 인식이 강해 일반과 좌석을 혼동하기 쉽고 출발지-경유지-종점으로 번호를 구성하다보니 비슷한 버스번호가 많은 것도 혼란을 준다는 것.”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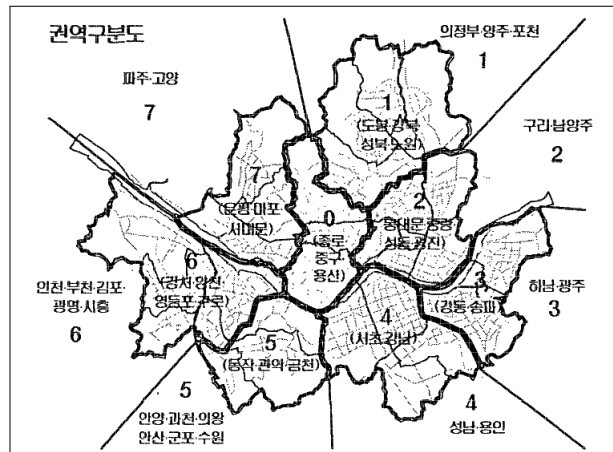
21)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D-5,” 대구매일신문 1998년 4월 30일자 기사(<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3072&yy=1998> [인용 2011. 5. 8]).

분석합성식 분류기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안된 새로운 번호가 조기성을 통해 충분한 장점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열거식에 비해 기호의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따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우려도 정확하게 짚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버스교통체계는 7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7월 버스의 노선과 번호, 요금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²³⁾ 이 시스템에서는 버스의 유형을, 목적지까지의 구간이 도심과 부도심간 이동인지 또는 도심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인지 등에 따라,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버스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표 4〉 참조). 아울러 각 버스의 유형 안에서는, 대구광역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스번호를 규칙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출발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기호를 부여하고(〈표 5〉 참조), 각 유형별로 별도의 방식에 따라 버스번호를 합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서울특별시의 버스유형의 패킷구분

버스유형	색깔	특징	버스번호의 예
간선버스	BLUE(파랑)	서울시내 먼 거리 운행 버스	506
지선버스	GREEN(초록)	간선버스와 지하철의 연계 환승 및 지역 내 운행 버스	4212
광역버스	RED(빨강)	수도권과 부도심을 급행 연결하는 버스	9401
순환버스	YELLOW(노랑)	수도심, 부도심 내 업무, 쇼핑 등 통행 수요 대응	41
마을버스	GREEN(녹색)	마을과 주요 지점을 왕복하는 버스	강남01



〈그림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출발지역의 권역별 구분도²⁴⁾

22) “버스노선 드러난 문제점,” 대구매일신문 1998년 4월 30일자 기사(〈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3626&yy=1998〉 [인용 2011. 5. 8]).
 23) 김선영, “DB서비스평가 ②: 버스 이용의 길잡이 ‘서울시 버스 노선 안내,’” 디지털콘텐츠, 제8권(2004), pp.68-70.
 24) 권태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례 분석과 시사점(대구 : 대구경북연구원, 2005), p.13.

〈표 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출발지역의 지역구분패시²⁵⁾

서울특별시		경기도	
기 호	권역별	기 호	출발지역
0	종로, 중구, 용산	1	의정부, 양주, 포천
1	도봉, 강북, 성북, 노원	2	구리, 남양주
2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3	하남, 광주
3	강동, 송파	4	성남, 용인
4	서초, 강남	5	안양, 과천, 의왕, 안산, 군포, 수원
5	동작, 관악, 금천	6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시흥
6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7	파주, 고양
7	은평, 마포, 서대문		

이상의 지역구분을 보면, 주민의 생활권역별로 지역을 구분하고,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출발지역에 대한 번호도 서울특별시의 인접지역의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조기성을 갖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버스번호는 이상의 각 버스유형에 따른 구분과 지역구분을 바탕으로 합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유형별 버스번호의 사례와 합성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간선버스 : 506 - 출발지(5)+도착지(0)+일련번호(6)
- ② 지선버스 : 4212 - 출발지(4)+도착지(2)+일련번호(12)
- ③ 광역버스 : 9401 - 9(광역버스)+경기도 출발권역(4)+일련번호(01)
- ④ 순환버스 : 41 - 권역구분(4)+일련번호(1)
- ⑤ 마을버스 : 강남01 - 구이름(강남)+일련번호(01)

이상의 분석내용을 문헌분류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의 서울특별시의 버스번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버스유형패시와 지역패시,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버스유형패시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의 유형과 색깔을 결합시켜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버스번호의 합성에서는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열거순서를 설정하고 있다. 이때 대구의 경우는 출발지패시와 경유지패시, 도착지패시, 서울의 경우는 출발지패시와 도착지패시에 동일한 지역구분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조기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권역별 고유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호법적 측면에서 보면, 대구의 경우는 0부터 9까지의 모든 기호를 지역구분기호로 사용함으로써, 차후의 지역의 확장에 대비하기에 불편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의 경우는 0부터

25) 네이버 서울버스통합검색(〈http://traffic.map.naver.com/Bus/Bus_1000_LaneGuide.asp?CID=1000&Mode=11&TMenu=3&LMenu=2〉 [인용 2011. 5. 8])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7까지의 기호만을 부여하고 하고 있다.²⁶⁾ 그 결과, 9는 광역버스의 기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8은 분류표의 간격기호(gap notation)의 예와 같이, 차후에 새로이 형성될 수도 있는 권역에 대한 기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혼정보회사 사이트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배우자 정보 제공 및 맞선 주선, 사이버 맞선 주선과 웨딩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 등 결혼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²⁷⁾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후보자들과 그들이 원하는 배우자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D사와 G사, S사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결혼후보자들에 대한 분석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6〉 D사의 회원분석 패킷

구 분	주요 포커스
결혼유형	초혼, 재혼
성 별	남, 여
연 령	20-22, 23-27, 28-32, 33-37, 38-42, 43-47, 48-52, 53 이상
학 력	고등학교, 대학(2년제), 대학(3년제), 대학(4년제),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직 업	공무원/공사, 교수/연구원/언론인, 사법시험/고시합격자, 서비스직(승무원, 미용, 여행사), 엔지니어/정보통신, 디자이너/예능계, 유학생/석박사재학중, 전문직, 일반사무직/금융직, 자영업/사업/프리랜서, 정교사/강사/기타교사, 특수직/건축/설계, 간호 및 기타의료사
연 봉	2천만원미만, 2천-3천만원, 3천-4천만원, 4천-5천만원, 5천-6천만원, 6천-8천만원, 8천만원이상
신 장	157cm미만, 158-163, 164-167, 168-173, 174-178, 179-184, 185이상, 중요치 않다.
거주지	강원, 서울, 경기, 부산, 충청, 영남, 호남, 해외
종 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재혼유형	사별, 이혼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자녀 수용여부	1명 양육, 2명 양육, 3명 양육, 불가, 전배우자 양육

우선 D사의 홈페이지의 회원현황 페이지를 분석해보면, 우선 회원을 초혼회원과 재혼회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회원별로 세분하고 있다.²⁸⁾ 초혼회원과 재혼회원 공히 연령, 학력, 직업, 연봉,

26) 물론 새로운 권역이 추가될 경우에는, 새로운 패킷에 대해 “ABC”나 “가나다”와 같은 새로운 기호법을 추가하여, 예컨대 “40A”나 “가75”와 같은 새로운 버스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비아숫자로 된 단일시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며, 그에 따른 불편함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27)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7137>> [인용 2011. 5. 8].

신장, 거주지, 종교의 패킷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혼회원에는 추가로 재혼유형, 자녀수, 자녀수용여부의 패킷을 설정하고 있다(〈표 6〉 참조). 이 가운데 연령의 경우는 초혼의 경우에는 43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재혼의 경우에는 23-27부터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의 경우에도 초혼의 경우는 좀더 단순화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G사의 홈페이지의 회원현황 페이지를 분석해보면, 이 회사 역시 회원을 초혼회원과 재혼회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회원별로 세분하고 있다.²⁹⁾ 초혼회원과 재혼회원 공히 연령, 신장, 체중, 거주지, 출신학교, 연봉, 거주형태, 주택소유형태, 종교, 학력의 패킷을 설정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G사의 회원분석 패킷

구분	주요 포커스
결혼유형	초혼, 재혼
성별	남, 여
연령	20대중반, 20대후반, 30대초반, 30대중반, 30대후반, 40대
신장	160미만, 160-165, 165-170, 170-175, 175-180, 180이상
체중	45kg미만,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이상
거주지	강원, 경기, 강남(서울), 강북(서울), 영남, 충청, 호남, 해외
출신학교	서울상위권, MBA, 서울중상위, 서울하위권/수도권, 지방국립대/캠퍼스, 지방중하위, 전문대졸, 고졸
연봉	1500만원미만,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2500-3000만원, 3000-3500만원, 3500-4000만원, 4000-5000만원, 5000-6000만원, 6000-7000만원, 7000-1억원, 1억원이상
거주형태	부모동거, 자취, 형제, 기타
주택소유형태	부모명의자가, 본인명의자가, 전/월세/기숙사/사택, 기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학력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MBA

S사의 홈페이지에는 회원현황 대신 결혼상대자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마련되어 있다.³⁰⁾ 이를 분석해보면, 사용가능언어, 결혼구분, 학력/직업/소득, 가정환경, 연령, 신장, 지역(국내 및 글로벌), 종교, 취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8〉 참조). 이 회사에서는 이 가운데 학력/직업/소득,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A(비교적 높음)부터 E(비교적 낮음)까지로 구분하고 있고, 연령과 신장에 대해서는 실제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검색창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추천회원에 대한 데이터로 판단해볼 때, 이 회사는 지역패킷에 시도별 구분을 추가하고 있고, 직업패킷에 교사, 사무원, 공인회계사, 매니저, 변호사, 중간관리자, 간호사 등의 포커스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의 성별패킷 또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28) 해당업체 홈페이지, <<https://www.duo.co.kr/>> [인용 2011. 5. 8].

29) 해당업체 홈페이지, <<http://www.gayeon.com/guide/>> [인용 2011. 5. 8].

30) 해당업체 홈페이지, <<http://www.couple.net/kr/>> [인용 2011. 5. 8].

〈표 8〉 S사의 회원분석 패킷

구 분	주요 포커스	
사용가능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결혼구분	미혼, 재혼, 자녀 없는 재혼	
학력/직업/소득	A, B, C, D, E(A: 비교적 높음, E: 비교적 낮음)	
가정환경	A, B, C, D, E(A: 비교적 높음, E: 비교적 낮음)	
연 령	19, 20, 21, … 68, 69, 70.	
신 장	() 이하	
지역	국내	내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전국
	글로벌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남극
종 교	개신교, 그리스정교, 불교, 성공회,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종교 없음, 기타	
취 미	공연관람(영화/뮤지컬/전시회), 여행, 등산/캠핑/낚시, 골프, 헬스/운동, 컴퓨터게임, 음악감상/노래/연주, 그림/사진찍기, 쇼핑, 요리/맛집탐방, 댄스/요가/무용, 봉사활동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사와 비교해볼 때, G사의 경우는 직업패킷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체중이나 출신학교, 거주형태, 주택소유형태 등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D사의 경우는 재혼의 경우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는 정보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S사의 경우는 글로벌한 지역구분과 사용언어 등의 국제적인 부분의 패킷이 추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종교에도 그에 관련된 추가포커스의 설정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이 세 회사의 정보에는 패킷이나 각 패킷의 구성요소, 즉 포커스의 내용도 상당부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몇몇은 아마도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홈페이지에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회사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저작권상의 문제나 영업상의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³¹⁾

중요한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결혼후보자 정보관리에서는 주요 관련패킷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각 포커스별로 이상형이나 가능성이 있는 결혼상대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에 관련된 탐색의 범위를 좁히거나 확장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³²⁾

31) 각 회사의 구체적인 패킷별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각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확보된 추가의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분석합성식 분류법과의 유사성을 밝히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32)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자가 시험적으로 작성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의 예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동근,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pp.72-74.

4. 부동산중개 및 법원경매 사이트

부동산중개란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³³⁾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상당수의 이러한 업체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훌륭하게 개발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전국의 다양한 목적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다양한 목적과 유형, 지역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그 검색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면서, 원하는 부동산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3〉은 R부동산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검색화면의 예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이 사이트에서는 2주간의 매물정보와 최신시세정보로 나누어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물 정보는 부동산유형과 거래유형,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패킷별로 구분해보면 〈표 9〉와 같다.



〈그림 3〉 R부동산의 빠른 검색 화면(일부)³⁴⁾

〈표 9〉 R부동산의 부동산분석 패킷

구분	주요 포커스
부동산 유형별	주거용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원룸, 전원주택, 상가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재건축
	상업용 상가, 상가건물, 빌딩, 사무실, 숙박콘도펜션, 공장, 창고, 토지, 재개발, 기타, 회원권, 교환물건, 경매
거래유형별	매매, 전세, 월세, 전세+월세
지역별	도시 → 시/군/구

33)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항.

34) 해당업체 홈페이지, <http://www.r114.co.kr/> [인용 2011. 5. 8].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서는 부동산을 부동산유형별패킷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거용과 상업용의 하위패킷으로 세분하고 있다. 주거용하위패킷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원룸, 전원주택, 상가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재건축’ 등의 포커스를 망라하고 있고, 상업용하위패킷은 ‘상가, 상가건물, 빌딩, 사무실, 숙박콘도펜션, 공장, 창고, 토지, 재개발, 기타, 회원권, 교환물건, 경매’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각 포커스 안에서는 더욱 상세한 하위패킷을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하위패킷에서는 면적, 매매가, 중개사무소 등의 추가패킷들이 추가되어 있다.

거래유형별패킷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 전세+월세’로 구분하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의미하는 ‘전세+월세’가 별도의 포커스로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지역별패킷은 다시 도시하위패킷으로 구분하고, 각 도시에서는 다시 시/군/구하위패킷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하위패킷의 포커스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신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추가되어 있는 점과 그 배열순서가 독특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부동산거래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판단한다. 문헌분류의 용어로 말하면,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를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원의 경매사이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물건상세검색에서는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한 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소재지, 사건번호(연도구분), 입찰구분, 기간,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면적, 유찰횟수, 최저매각가율, 특이사항 등의 패킷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상세히 분석해보면 〈표 10〉과 같다.



〈그림 4〉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물건상세검색 화면(일부)³⁵⁾

35)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http://www.courtauction.go.kr/〉 [인용 2011. 5. 8].

〈표 10〉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중 부동산검색의 주요패킷

구 분		주요 포커스
법원/ 소재지	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사건번호 (연도구분 포함)		1995, 1996, ... 2010, 2011 [타경()]
기 간		○○○○~○○○○
용 도	토지	지목
	건물	주거용건물, 산업용 및 업무용,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용도복합용
감정평가액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 9억원, 9억5천만원, 10억원)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 9억원, 9억5천만원, 10억원)
최저매각가격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 9억원, 9억5천만원, 10억원) ~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 9억원, 9억5천만원, 10억원)
면 적		()㎡ ~ ()㎡
유찰횟수		(1회, 2회, ... 9회, 10회) ~ (1회, 2회, ... 9회, 10회)
최저매각가율		(50%이하, 50%, 60%, 70%, 80%, 90%, 100%) ~ (50%이하, 50%, 60%, 70%, 80%, 90%, 100%)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유치권, 분묘기지권, 재매각,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예고등기, 선순위관련, 우선매수신고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서는 경매부동산을 법원과 소재지패킷으로 구분하고, 법원하위패킷에서는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세분하고, 소재지하위패킷에서는 광역시도로 구분하고 각 시도별로 다시 시/군/구, 읍/면/동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번호패킷에서는 해당연도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용도별패킷에서는 토지하위패킷과 건물하위패킷으로 나누어 세분하고 있다. 토지하위패킷에서는 지목별로 구분하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등의 포커스로 추가세분하고 있다. 건물하위패킷에서는 다시 주거용건물, 산업용 및 업무용,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용도복합용 등의 하위패킷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거용건물하위패킷에서는 다시 이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빌라, 상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포커스로 세구분하고 있다.

감정평가액패킷과 최저매각가격패킷에서는 1천만원부터 시작하여 5천만원 단위로 끊어 10억원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면적에 대해서는 ㎡를 단위로 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유찰횟수와 최저매각가율패킷도 추가되어 있다. 특이사항패킷에는 경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의 포커스로 설정해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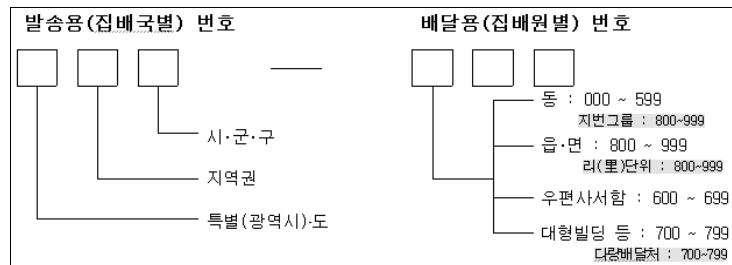
R부동산의 패킷들과 대법원 경매사이트의 부동산에 대한 패킷들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지역구분에 있어서도, R부동산의 경우에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시하고 신도시를 추가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량을 반영하는 예나, 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사건번호나 감정가격, 유찰횟수 등의 패킷을 추가하고 특이사항으로서 법정지상권, 별도 등기 등의 포커스들을 설정하는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목적에 합당한 패킷과 포커스를 적절하게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주거용건물에 대한 포커스설정에서도 그 목적에 따른 구성요소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5. 우편번호 및 광역전화통화권역(DDD) 구분시스템

우편번호는 “문자로 표시된 주소를 숫자로 표현한 우편물 자동화 처리를 위한 기본코드”³⁶⁾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5자리의 우체국별 우편번호가 처음 제정된 이래, 1988년의 6자리의 행정 구역별 우편번호를 거쳐, 현재는 2000년에 개정된 6자리의 집배원별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의 우편번호 부여체계를 개념화하면, <그림 5>와 같다. 즉 현행우편번호는 3자리의 발송용(집배국별) 번호와 3자리의 배달용(집배원별) 번호, 총 6자리의 번호로 구성된다. 이중 특히 발송용 번호는 분석합성식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우편번호 부여체계 개념도³⁷⁾

발송용번호는 3개패킷으로 구성되며, 그 열거순서(citation order)는 “시도번호 → 지역권번호 → 시·군·구번호”의 순으로 되어 있다. 우선 발송용번호의 첫 번째 패킷에 해당하는 시도별구분기호는 서울(1), 강원도(2), 대전·충남·충북(3), 인천·경기(4), 광주·전남·전북(5), 부산·경남·울산·제주(6), 대구·경북(7)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괄호안은 해당시도의 번호임). 이어서 두 번째 패킷에서는 각 시도를 지역권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의 시·군·구번호는 각 권역별로 0부터 9까지의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36)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편번호안내,”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1040100>> [인용 2011. 5. 8]. 참조.

37) Ibid.

같이 부여된 기호를 합성하여 3자리의 발송용번호가 완성된다(〈표 11〉 발송용번호 부여기준표 참조). 따라서 서울시 서대문구의 발송용번호는 “1(서울시) + 2(지역권번호) + 0(시·군·구번호) → 120”이 된다.

〈표 11〉 발송용번호 부여기준표(일부)³⁸⁾

시도	지역번호	시·군·구번호									
		0	1	2	3	4	5	6	7	8	9
서울 (일부)	10	중구									
	11	종로구									
	12	서대문	마포구	은평구							
	13	동대문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충남 (일부)	33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연기군
	34	예산군			당진군		청양군				
	35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대구·경북 (일부)	70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71		대구 달성군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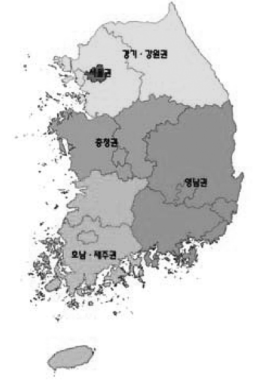
한편 KT의 DDD번호는 전국의 전화통화권역을 서울권(02), 경기·강원권(03), 충청권(04), 영남권(05), 호남·제주권(06)의 5개 광역권으로 구분한 후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세분기호를 부여하고 있다(〈그림 6〉 참조).³⁹⁾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DDD번호의 열거순서는 “프리픽스(0) + 권역별구분기호(2~6) + 시도구분기호(1~5)”의 순서를 택하고 있다. 첫 번째 패킷에 해당하는 프리픽스는 모든 DDD번호에 공통적으로 0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패킷에 해당하는 권역별구분기호는 서울권 2, 경기·강원권 3, 충청권 4, 영남권 5, 호남·제주권 6의 기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포커스의 배열순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그 인접순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패킷에 해당하는 시도구분기호는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예에는 광역시

38)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의 “발송용번호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명용으로 그 일부 예만 제시하였음.
 39)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3-29호, 2003. 6. 12.) 제2장 제7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번호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충북	부산	울산
지역번호	2	31	32	33	41	42	43	51	52
번호권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예비	
지역번호	53	54	55	61	62	63	64	34~39, 44~49 56~59, 65~69	

의 2나 남도의 1, 북도의 3과 같이 공통된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기호를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은 패킷분석을 통해 조기성을 부여했다라면, 전 국민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분	해당구역	
서울권	서울특별시(02)	
경기·강원권	인천광역시(032), 경기(031), 강원(033)	
충청권	대전광역시(042), 충남(041), 충북(043)	
영남권	부산광역시(051), 대구광역시(053), 울산(052), 경남(055), 경북(054)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062), 전북(063), 전남(061), 제주(064)	

〈그림 6〉 KT의 광역전화통화권역구분⁴⁰⁾

〈표 12〉 권역별 기호부여 비교표⁴¹⁾

구 분	서울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시도	기호	시도	기호	시도	기호	시도	기호	시도	기호
특별시·광역시	서울	02	인천	032	대전	042	부산 대구 울산	051 053 052	광주	052
남 도					충남	041	경남	055	전남	061
북 도					충북	043	경북	054	전북	063
기 타			경기 강원	031 033						

IV. 결 언

이 연구에서는 실제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석합성식 분류이론과 기법의 응용이 가능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 문헌분류적 시각에서 해석해보았다. 일부 사례는 단순한 패킷분석과 그에 따

40) 김광익,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서울 : 국토연구원, 2008), p.28.

41) 이러한 기호법에는 일부 예외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 전 지역과 안산시 단원구 도서지역은 032를, 과천시 및 광명시 전 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및 하남시의 일부는 02를 지역번호로 사용하며, 충남 계룡시 전 지역은 042를 사용한다. 울산의 일부지역은 055를 사용하고, 경북 경산시 전 지역은 053을 사용한다고 한다(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별표 1] 번호권별 지역번호 및 수용 통화권" 참조).

른 열거순서의 적용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기호부여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다.

한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한글자모의 분석과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에 의한 한글의 조형이 분석합성식 분류기법의 원리와 아주 유사하며,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통해서도 한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설명이 한글교육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번호시스템에 대한 분석에서는 패킷분석을 통한 기법이 색상 등과의 결합에 의해 시너지를 내면서 실생활에 얼마나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혼정보회사와 부동산관련사이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고객의 니즈(needs)에 맞는 패킷분석기법의 적용 필요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우편번호와 DDD 구분시스템에서는 이용목적에 따른 패킷분석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조기성이라는 작은 아이디어가 시스템을 얼마나 훌륭하게 개선시키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만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상의 사례들이 패킷분석이나 기호법이론 등 정교한 분석합성식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용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시각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휴리스틱(heuristic)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그것이 단지 정교한 코딩시스템의 설계로 간주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예컨대 조기성의 원리 등을 포함한 분류이론과 기법을 그와 같은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정보시대를 맞으면서 국내외에서 한때 문헌정보학의 위기설이 대두되었고, 특히 문헌분류를 포함한 자료조직이 그 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 후로도 분류무용론이나 간략분류에 대한 의견들이 도서관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론가들이 옹호했던 대로, 그리고 일부의 기술승배론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문헌정보학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에 적응하면서, 여전히 소기의 학문적·실무적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료조직의 영역 역시 정보와 자료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혼란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과 같은 다학문적 시대에서는, 각 학문분야의 고유연구자들이 다른 분야의 이론들과 결합하고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시대에,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지역화 내지 지방화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주제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합성식 문헌분류이론의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단순히 주제의 분석과 표현에 국한된 실용성을 갖는다는 일부의 그릇된 편견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범위를 넘어서서 학문전반에 걸쳐 기여하고 실생활에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